

시리아 난민 200명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국정원, 135명 전국 분산 체류...65명은 '입국 대기'

한국, IS 테러 대상국에 포함...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IS 지지' 국민 10명 적발...법령 미비로 신원 파악 안돼

시리아 사태 이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이 2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 온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심사 중인 상황이다. 나머지 65명은 아직 임시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항 내 외국인보호소와 인근 난민지원센터에 수용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온 난민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살기가 괜찮은 분들인데, 이들 중 135명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신고하고 가 있다가 심사가 끝나고 허가가 되면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아직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0명이 IS를 지지한 것을 적발했지만, 관계 법령의 문제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했거나 테러 위협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적발,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은 출국 후 IS에 가입해 활동하다 사망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출국 전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IS가 지난 8월 간행물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미국이 주도하는 '심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 발견됐으며, 국내에서도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국정원장은 "국내에서도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원은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전 한국 합동 훈련 광주시 동구청은 18일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KT정보통신센터 등 16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KT정보통신센터에서 대형화재 대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가스누출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광주 동구청 제공>

알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 회원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을 시작합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 기간 : 2015년 11월 23일(월)~2016년 1월 31일(일)

■ 모금 계좌

▲ 광주 : 광주은행 013-107-373299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062-222-3566)

▲ 전남 : 농협 617-01-16265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061-902-6800)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

전수조사 이상없던 영암서 또 AI 발생

전수조사를 벌여 이상이 없던 영암의 한 오리농장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오는 12월 7일 해체 예정이었던 이동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는 18일 "지난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농가 나온 영암 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AI가 발생한 영암의 한 오리 농가 반경 3km 보호지역에 있는 다른 농가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I 감염 오리를 추가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인이 나오기 전인 14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2만170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 처분했다.

지난 10월 18일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보호지역으로 설정한 반경 3km 이내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달간 AI 가 모두 8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남도내 오리농장 439곳에 대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야 발원된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농장 내에 내재돼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 대통령 '방북설' 반기문 총장 만날까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정부 "지금까지 계획없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반 총장이 오는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나란히 참석함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21일 EAS 갈라 만찬(21일), 22일 정상회의 및 정상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재까지 박 대통령은 EAS에서 반 총장과 별도로 회동할 일정은 없는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18일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별도로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 총장의 방북이 유엔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현재까지의 청와대 반응으로 비춰볼 때 박 대통령과 반 총장간 의미있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반 총장의 방북 일정이 EAS 전까지 확정될 경우 북한 문제 핵심 당사국의 수장인 박 대통령과 우리나라 출신의 유엔 수장인 반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EAS를 계기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반 총장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상징하는 대북 구상 등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북관계 개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 농업, FTA로 연 2069억 생산 감소

축산·과수·곡물 順...고소득 작물 생산·친환경 내실화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전남 농업은 축산, 과수, 곡물, 채소 등의 순으로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전국 점유율이 높고 노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투입되는 전남 농업의 약점을 극복해야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18일 한·중 FTA 타결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 분야의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2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EU·영연방·중국·베트남 등 주요 FTA에 의해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조1368억원, 전남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연평균 20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내 농업 생산 감소액 중 축산이 연평균 1475억원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으며, 이어 과수(447억원, 21.6%), 곡물(75억원, 3.6%), 채소(56억원, 2.7%) 등의 순이었다. FTA가 가축화물 경우 자급률이 하락하고 축산농가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쌀·김치·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중국 측의 검역·위생 절차가 진행중이다. 특히 김치는 지난 2010년 116만t이 수출됐으나 검역기준이 강화되면서 2014년에는 2.5t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연구원 측은 쌀·김치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소독기 준 합의, 가공공장 등록,

중국 내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며, 삼계탕은 선호도가 낮아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전남도가 FTA에 대비해 저비용 고소득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년 신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육성 ▲수도권 위주의 식량작물급급보다는 고소득 작물생산체제로의 전환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유통 체계 구축 ▲동물 복지 축산물 브랜드화 및 소비 확대 방안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남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는 규모의 영세성, 낮은 마케팅 및 판로 확보 경쟁력, 농협 계약재배 실적 부진을 들었으며, 해결책으로 시·군 단위 농협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전남도·농협 농산물도매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Special atmosphere. Special taste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떡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